

“기록은 쌓이고 시간은 줄어든다”

KIA 이범호 1900경기 출장까지 1경기 남아

“올 시즌 2천경기 뛰고 3천루타·2천안타도 욕심”



“기록은 쌓여가지만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1900경기를 앞둔 소회를 언급했다.

KIA의 이범호는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하면서 프로 무대에서 1899번째 경기를 뛰었다.

이범호가 9일 다시 그라운드에 오르면 KBO리그 통산 19번째 1900경기 출장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대구고를 졸업하고 2000년 한화에 입단했던 그는 2010년 일본에 진출했다가, 2011년 KIA 선수가 되어 KBO리그에 복귀했다.

그리고 2018년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1900경기를 맞게 됐다. 그리고 남은 시즌 큰 부상 없이 보낸다면 야구 인생의 목표 중 하나인 2000경기 출장을 이룰 수 있다.

이범호는 “(2000경기) 이루고 싶던 기록 중 하나다. 올 시즌에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2000경기를 뛰면 좋겠다. 많은 선수가 이루지 못한 기록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 같다”며 1900번째 경기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기쁨’ 뒤에는 ‘진한 아쉬움’도 함께 한다.

이범호는 “어렸을 때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었다. 연속으로 때 떨어는 빨리 그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

록은 점점 쌓여가고 있지만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아쉬운 미소를 지었다.

“기록은 이범호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2000경기 이후 그는 3000루타 그리고 2000안타라는 목표를 올려보고 있다. 8일 경기 전까지 이범호는 2928루타, 1641안타를 기록했다.

이범호는 “기록이 있으니까 더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다.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3000루타도 정말 해보고 싶던 것 중에 하나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꿈들이 있어서 좋다”며 “2000안타도 욕심이 나는 기록이지만 내가 정확한 타자가 아니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남은 기록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목욕하 팀을 대표하는 타자로 걸어오면서 쌓아 가고 있는 기록. 그 과정에 일본 무대에서 쓴 실패도 경험했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기도 했다.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이범호에게는 ‘팀’도 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난해 프로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이범호는 올 시즌에도 팀을 대표하는 주축 선수로 큰 무대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시즌 초반 부진이 더 미안했던 이범호다.

이범호는 “초반에 잘 못 해줘서 미안했다. 선발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면 이기고 그해야 덜 부담스러웠을 것인데, 많이 부담됐을 것이다. (김)주찬이랑도 우리가 더 못 쳐서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다”며 “안 좋았던 것들은 빨리 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범호가 프로 무대 1900경기 출장에 한 경기만을 남겨뒀다. 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홈런을 터뜨린 이범호. <KIA 타이거즈 제공>

김시우 타이틀 방어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

김시우(23)가 오는 1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앞두고 타이틀 방어에 향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김시우는 7일 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선 전년도 우승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걸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컵을 차지한 김시우는 “타이틀 방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PGA 투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아직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세 번 우승한 잭 니클라우스와 두 번 우승한 타이거 우즈를 포함해 6명의 다승자가 있지만 연속으로 우승한 경우는 없다.

/연합뉴스

동점타·역전 득점 추신수 팀 연패 끊어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동점 타점과 역전 득점에 성공하며 팀 연패 탈출에 힘을 보탤다.

추신수는 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로 1타점과 1득점을 올리며 팀에 승리를 선사했다.

1회 삼진, 3회 내야 땅볼, 6회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5-6으로 끌려가던 7회 2사 1루에서 타석에 섰다. 데니얼 스티프와 상대한 추신수는 6구째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힘껏 잡아 당겼다. 타구는 1루와 2루 사이 깊숙한 곳으로 굴러갔고, 디트로이트 2루수 디슨 마차도의 글러브에 맞고 굴절됐다.

그 사이 1루에 있던 딜라이노 디실즈는 2루를 거쳐 3루, 홈까지 차례로 밟아 6-6 동점을 만들었다. 추신수의 타격과 드실즈의 빠른 발이 합작한 동점 득점이다. 처음에는 추신수의 타구가 2루수 실책으로 기록됐지만, 곧 내야 안타로 정정됐다.

/연합뉴스

박성현 세계랭킹 4위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거둔 박성현(25)의 세계랭킹이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8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박성현은 유소연(28)과 자리를 맞바꿔 다시 4위로 올라섰다.

박성현은 7일 끝난 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에서 18번 홀 황상의 집인 버디에 힘입어 1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9개 월 만에 거둔 LPGA 통산 세 번째 우승이었다.

세계랭킹 1위 자리는 박민비(30)가 3주 연속 지켰다.

박민비와 2위 평산선(중국), 3위 렉시 톱스(미국)는 모두 텍사스 클래식에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아버지날을 맞아 '아빠의 청춘 사진회'에 참가한 조계현(앞줄 왼쪽) 단장이 사인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카네이션 만발한 챔스필드

아빠의 청춘 사진회 등 ‘아버이 날’ 이벤트

사람과 추억으로 가득 찬 챔피언스 필드였다.

KIA 타이거즈는 아버지날이었던 8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챔피언스필드에서 홈경기를 치렀다. 아버지날을 맞아 KIA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먼저 선수단은 카네이션 패치와 카네이션 문양 배번이 수놓아져 있는 ‘카네이션 유니폼’을 입고 이날 경기에 나섰다.

투수 한승혁, 유승철, 김유신과 외야수 이명기는 전광판을 통해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승혁은 영상을 통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오늘 아버지날인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라며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KIA는 이날 가족편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1000송이도 증정하면서 아버지날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부모님을 위한 ‘아빠의 청춘 사진회’가 준비되면서 타이거즈를 대표했던 옛 선수들이 팬들과 만났다.

‘싸움닭’, ‘팔색조’로 명성을 떨친 조계현 단장과 한국시리즈 최다승(7승) 기록을 보유한 김정수 투수코치, ‘안방마님’ 정회열 수석코치가 사인회 선수로 참가해 추억을 선물했다.

타이거즈 원년 야구팬인 정찬(61), 이정숙(여·63) 부부도 ‘옛 스타’의 사인을 받으며 즐거운 아버지날을 보냈다.

두 부부는 “해태 시절부터 함께 야구를 보러 다녔다.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지만 사인은 처음 받아본다. 둘 다 조계현 단장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직접 사인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며 “근성 없는 야구에 실망해서 한동안 야구장을 안 다니기도 했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타이거즈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올해도 우승해야 한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 “마무리, 그때 그때 달라요”

김상훈 코치 “홈런 존 차 받아브리야제”

덕아웃 T 특독

▲차 한 대 받아브리야제 = 선수들보다 파이팅이 넘치는 김상훈 배터리 코치다. 김 코치는 8일 타격 훈련시간에 배팅볼 투수 역할을 맡았다. 공을 던지는 내내 입이 실 틀이 없던 김 코치였다. 김 코치는 구수한 사투리로 “(홈런) 차 한 대 받아브리야제, 멀리 날려 버려” 등을 외치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덕분에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훈련. 김 코치는 배팅볼 투수 역할이 끝난 뒤 “선수들보다 맘을 더 흘렸다”

며 웃었다.

▲(김)유신이 덕에 편했어요 = 1군 무대에서 첫해를 보내고 있는 고졸 2년 차 유승철은 얼마 전 막내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고졸 루키인 좌완 김유신이 1군에 등록되면서 막내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두 사람은 순천 이수중에서 1년 정도 함께 야구를 했던 선배배 사이. 유승철은 “당시에도 유신이가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17cm가 컸다”며 “야구도 잘해서 감독님이 유신을 집중해서 훈련 시키셨다. 덕분에 나는 (훈련이) 편했다”고 웃었다. 김유신은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중학교

때 1년 정도 순천 이수중을 다녔다. 그때는 통통하고 납작한 스타일이었는데 살이 빠지면서 키가 확 컸다”고 말했다. 김유신은 여수서초-화순초-화순중-순천이수중-광양진월중-청주중-청주고-세광고를 거쳐 KIA에 입단했다.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 김세현이 빠지면서 ‘집단 마무리 체제’가 가동된다. KIA는 지난 5일 두 경기 연속 불펜세이브를 기록한 김세현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홍건희를 등록시켰다. 마무리가 빠지게 되면서 뒷문 단속이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 8일 경기를 앞두고 마무리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상황에 맞게 김은동, 임창용을 투입하겠다. 이민우도 앞선 등판에서는 좋지 못했지만 기용할 생각이 다”고 마운트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탁구, 사상 첫 평양오픈 참가할까

북한탁구협, 국제심판 참가 요청...국제 탁구계 교류 신호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한국과 여자 대표팀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던 북한탁구협회가 국제탁구연맹(ITTF)을 통해 국제심판들의 평양오픈 참가를 요청했다.

ITTF는 8일 홈페이지에서 북한탁구협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2018 ITTF 챌린지 평양오픈에 국제심판을 보내달라는 공개 초청장

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평양오픈에 참가하는 국제심판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ITTF 규정에 따라 매일 25달러(약 2만7000원)의 수당을 준다. 또 평양국제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교통편도 제공한다. 평양오픈은 ITTF 주관 투어 대회 중 참가 선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슈퍼, 메이저, 챌린지 등 3등급으로 나누는 대회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챌린지급 대회다.

2016년 대회 때는 그해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단체 동메달을 딴 디미트리 오브차로프(독일)와 일본의 간판 미즈타니 준 등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실험 여파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작년 8월 대회에는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 선수만 출전했다.

북한탁구협회가 국제심판을 공개 초청한 건 최근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국제 탁구

계와 교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평양오픈에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선수단은 스웨덴 현지에서 주정철 북한탁구협회 서기장에게 평양오픈에 참가할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오픈 참가 추진에는 2020년 세계선수권대회의 부산 유치에 앞장선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매신자로 활약했다. 유 위원장은 남북 여자대표팀이 27년 만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우리 선수단이 평양오픈에 참가하면 북한을 오는 7월 대전에서 개최하는 코리아오픈에 초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